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 구축

박원호*

차 례

1. 서론
2.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 선별 기준
3.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
4. 결론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글문화연대에서 제공하는 공공언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공공언어의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으로 공문서는 우리 글자인 한글로 적어야 한다는 내용을 14조 1항에 규정하였고, 이는 2017년에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라고 명시하며 뜻을 정확하고 전달하고,

* 한남대학교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강의전담교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나 신조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토대로 하여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가 수행한 ‘우리나라 통용 외국어/외래어에 대한 국민 이해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74%가 일상에서 외국어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일상에서 외국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36.1%로 확인되었다.¹⁾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는 2020년 ‘신어(외국어)에 대한 국민 언어사용도 조사’에서 535개의 외국어 낱말을 선정하여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우리말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56.4%로 나타났다.

또한,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에 가장 높은 비율(77.1%)을 보인 낱말은 ‘타운홀 미팅’²⁾이었으며, 가장 낮은 비율(32.1%)을 보인 낱말은 ‘소셜 미디어’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국어원의 2020년 ‘제4차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결과보고서’의 국민의 53%가 외래어 및 외국어의 국어 순화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처럼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의 경우, 순화 혹은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로 미루어보면, 공공언어 속 외래어(외국어)의 사용 실태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선의 방향이 무분별한 대체어 제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즉,

1) 김아영(2021),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에서의 외국어 표현 이해도 조사 활용 방안」, 『공공언어학』 5호, 한국공공언어학회, 59쪽.

2)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은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을 ‘주민 회의’로 제시한다.

‘타운홀 미팅’처럼 바꿔 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낱말과 ‘소셜 미디어’처럼 국민의 이해 정도에 따른 수용도를 고려해볼 만한 낱말은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는 국민의 이해도를 고려한 공공언어의 평가 목록 구축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공공언어의 외래어(외국어)³⁾ 평가 목록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이다. 평가 목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목록을 선별할 대상 자료가 필요하다. 그간 공공언어의 진단 기준은 대부분 문어로 작성된 자료를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범주	내용
공통 범주1	뉴스, 보도자료, 안내문, 소개문, 보고문, 인사말, 법률문, 통계 자료, 공고문, 연설문
공통 범주2	현장, 민원 서식, 질의응답, 칼럼(및 기고), 용어 사

3) 공공언어의 평가 대상으로 외래어(외국어) 범위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에서 나름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외래어가 갖는 ‘국어에 널리 쓰이는’ 성격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외래어를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라고 설명한다. 외국어의 경우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어’라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공공언어의 평가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나, 외래어의 경우 공공성을 어느 정도 수반하고 있으므로 개선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지 숙고가 따르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라는 내용에 초점을 두어 ‘외래어(외국어)’로 표기하고 ‘외래어·외국어·외국 글자·외래어(외국어)와 외국 글자의 혼종어’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에 더하여 한자어는 본 발표가 이루어지는 학술 대회의 다른 발표자의 주제로 정해져 있으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전, 지침서, 인터뷰 및 브리핑, 홍보자료, 회의록, 약관, 교육 자료
개별 범주3	기상청의 기상 통보문, 문화재청의 문화재 설명문, 문화재청과 산림청의 기행문, 소방방재청의 재난 종합 상황 안내문, 환경부의 환경 정보 설명문, 외교통상부의 설명문

[표 1] 공공언어의 유형

민현식 외(2010)에서 제시한 공공언어의 세 유형으로 보면, 공통범주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생산 건수도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변화하는 상황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구성하는 표현이 다른 범주4)에 비해 풍부하게 사용될 것이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노출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공통범주 1의 유형이 평가 자료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글문화연대의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외래어(외국어) 목록을 기본 대상 자료로 삼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공언어 진단 기준의 ‘소통성(용이성)’을 중점으로 평가 목록을 검토한다. 민현식 외(2010)에서 공공언어 진단을 위한 기준으로 ‘정확성’과 ‘소통성’을 제시한 이후로 진단 기준을 정밀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⁵⁾ 공공언어 진단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정확성’은 어문규범을 토대로 맞춤법과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외래어(외국어)의 경우 ‘정확성’을 판단하는 내용은 규범 표기, 즉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에 준하여 올바르게 사용하였는지를 판단한다. 이에 그 평가 내용은 ‘리후렛(→리플릿), 인증샷(→인증샷), 팝플렛(→팸플릿)’처럼 오탃자 정도

4) 공통 범주2와 개별 범주3의 자료 유형은 ‘민원 서식, 지침서, 특정 기관의 문서’처럼 공공언어의 사용이 한정적이며 고정적이다.

5) 이에 관한 논의는 강남욱·박재현(2011), 이지용·김미선(2018), 백경미(2019), 김미형(2020), 서현정(2021) 등에서 이루어졌다.

의 지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나 본 연구의 목적이 이해도를 고려한 평가 목록 구축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확성 기준은 논외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외래어(외국어)의 경우는 국민의 이해도를 고려한 ‘소통성(용이성)’이라는 기준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⁶⁾

이상의 대상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2장에서는 공공언어의 이해도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언어 목록을 선별할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다. 3장에서는 한글문화연대의 ‘쉬운 우리말을 쓰자’(이하 ‘쉬운 우리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고빈도어’ 자료에서 수집한 외래어(외국어) 목록을 2장의 이해도 조사와 기존의 공공언어 진단 기준 내용을 토대로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대상이 될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 선별 기준

2.1. 외래어(외국어) 이해도 조사

본 연구는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표현을 평가 목록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외래어(외국어)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평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아닌 공공언어를 마주하는 대상자가 이해하기 쉽다고 판단되면 평가 목록에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평가 목록이 구축되어야만 공공언어의 생산자와 수용 대상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가 실시한 ‘우리나라 통용 외국어/외래어에 대한 국민 이해도 조사’(이하 ‘이해도 조사’)

6) 공공언어의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선별 방향은 2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에 따르면, 조사 대상어인 3,500개 표현에 대한 이해도가 61.8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60%가 이해하는 단어는 약 30% 정도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외국어 표현도 응답자의 연령을 고려한 결과 세대 간의 이해도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격차를 고려하여 그 틈을 좁힐 수 있는 공공언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해도 조사’에 응답한 전 세대의 평균 이해도가 70점 이상인 목록을 정리하고, 이를 1차 선별 자료로 삼고자 한다.

순위	표현	평균 이해도	70대 이상 평균 이해도	60대 이하 평균 이해도
1	아파트	89.4	97.6	88.1
2	박스	88.1	95.2	87
3	치킨	88	97.5	86.5
4	다이아몬드	87.1	90.5	86.6
5	아나운서	87.1	90.2	86.6
6	택시	87	97.9	85.1
7	휴대폰	86.4	100	84.2
8	컴퓨터	86.4	89.4	85.9
9	TV	86.3	97.6	84.6
10	핸드백	85.9	97.6	84.2
11	물티슈	85.9	93	84.8
12	보일러	85.8	92.5	84.8
13	비타민	85.8	85	85.9
14	선글라스	85.6	97.5	83.8
15	샴푸	85.4	95.7	83.6
16	안전벨트	85.4	92.9	84.3
17	아이스크림	85.3	95	83.8
18	스마트폰	85.3	92.9	84.2
19	케이크	85.3	83.3	85.6
20	샤워	84.8	95.1	83.3
21	티셔츠	84.7	82.9	84.9
22	마트	84.6	97.5	82.6

23	크리스마스	84.6	95.3	83
24	카메라	84.5	97.6	82.6
25	에어컨	84.5	95.2	82.9
26	뉴스	84.5	93.6	82.9
27	핸드폰	84.5	93.3	83
28	헬기(헬리콥터)	84.4	87.8	83.9
29	빌딩	83.9	97.5	81.8
30	게임	83.8	90.5	82.7
31	타이어	83.8	85.1	83.6
32	마라톤	83.7	92.5	82.4
33	엘리베이터	83.5	84.8	83.3
34	싱크대	83.4	90	82.5
35	슈퍼마켓	83.3	95.2	81.5
36	가스	83.3	95	81.5
37	아르바이트	83.3	82.5	83.5
38	보너스	83.2	91.5	81.8
39	웨딩드레스	83.2	90.5	82.1
40	라디오	83.2	88.9	82.3
41	컵	83	90.2	81.9
42	쇼핑백	83	90.2	81.9
43	파티	82.9	83	82.8
44	트럭	82.8	83.7	82.6
45	서비스	82.7	90.5	81.5
46	카페	82.6	90.5	81.4
47	테이프	82.6	90	81.4
48	쇼핑	82.5	87.5	81.8
49	댄스	82.4	85	82
50	아이디어	82.4	80	82.8
51	사우나	82.3	90	81.2
52	마이크	82.3	82.9	82.2
53	셔틀버스	82.2	85	81.8
54	알코올	82.2	83	82.1
55	휠체어	82	92.9	80.4
56	앨범	82	87.8	81.2
57	리모컨	82	82.9	81.9
58	스포츠	82	80	82.3
59	비닐하우스	81.9	95	80
60	커튼	81.9	87.5	81.1
61	모델	81.7	85.7	81.1

62	카드	81.7	85.4	81.2
63	에스컬레이터	81.5	81.4	81.5
64	메뉴판	81.4	95.2	79.3
65	아이스박스	81.4	90.2	80.1
66	레스토랑	81.4	88.1	80.4
67	서커스	81.4	87.8	80.5
68	비디오	81.4	82.9	81.2
69	크레파스	81.2	86	80.4
70	알레르기	81.2	80	81.4
71	테이블	81.1	92.9	79.3
72	마사지	80.9	88.1	79.9
73	안내 데스크	80.9	80	81.1
74	인테리어	80.8	82.9	80.5
75	터널	80.7	80.4	80.7
76	에너지	80.7	78.7	81.1
77	로션	80.4	86	79.5
78	유니폼	80.4	85.7	79.6
79	셔츠	80.3	95	78
80	헬멧	80.3	80	80.3
81	코미디언	80.1	85.4	79.3
82	힌트	80.1	82.5	79.8
83	다이어트	79.7	85.4	78.9
84	터미널	79.7	84.4	79
85	퀴즈	79.7	80.5	79.6
86	타월	79.5	92.5	77.5
87	인터폰	79.5	80.9	79.3
88	CCTV	79.4	92.7	77.4
89	슈퍼	79.4	90.5	77.7
90	아스팔트	79.4	88.1	78.1
91	커트	79.4	80.9	79.2
92	마스크	79.4	80.4	79.3
93	리본	79.3	82.9	78.7
94	드라마	79.2	81	79
95	드레스	78.6	85.7	77.5
96	안테나	78	80	77.7
97	페인트	77.6	87.2	76
98	드라이	77.4	87.5	75.9
99	크림	77.3	88.1	75.7
100	빌라	77.1	82.9	76.2

[표 2] '이해도 조사'의 전 세대 평균 이해도 70점 이상의 표현 목록

위 [표 2]는 ‘이해도 조사’의 70세 이상이 쉽게 이해하는 외국어 표현 중 상위 100개를 이해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한 것이다. 이 자료는 70세 이상이 쉽게 이해한다는 기준(평균 이해도 88.5점)이 설정되어 있지만, 60대 이하 응답자의 평균 이해도 역시 81.6점이라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므로 이는 결국 전 세대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쉬운 우리말’의 ‘외국어 고빈도어’ 자료에서 [표 2]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다면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대상에서 제외하고 2차 선별 과정으로 넘기기로 한다.

2.2. 공공언어 진단 기준

2019년 국립국어원은 ‘어려운 공공용어 진단 기준 마련’에서 어려운 공공용어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의 수용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 국민의 이해도는 2.72점으로 3.59점의 공무원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공공용어가 일반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이 아닌 해당 공공기관 중심의 언어 사용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방향은 ‘소통성’ 개선에 무게를 싣게 된다.

현재까지 공공언어의 진단 기준은 민현식 외(2010)의 내용을 시작으로 깊고 더해지는 중이다.

영역	요소	항목
1. 정확성 (범용기준)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2. 띄어쓰기를 잘하였는가?
		1.1.3.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법을 지켰는가?
	1.2. 표현의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정확성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2. 소통성 (가중치 기준)	2.1. 공공성 (생산자 중심)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2.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2.2. 정보성 (텍스트 중심)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2.3. 용이성 (수용자 중심)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표 3] 공공언어 진단 기준(민현식 외: 2010)

[표 3]의 내용처럼 공공언어의 진단 기준은 크게 ‘정확성’과 ‘소통성’이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살핀다. 정확성은 공공언어의 표기 즉,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와 문장부호 등을 잘 지켜 쓰는지를 점검하고, 아울러 문장 단위에서 호응 관계나 명료한 문장의 구성 등을 통해 의미 전달을 점검하는 표현 점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외래어(외국어)의 경우는 ‘클리닉(클리닉)’으로 적어 표기의 지적 받거나, ‘~로부터’, ‘~에 의해’처럼 영어식 전치사구의 영향을 받은 번역투 문장 표현이 그 예가 된다. 이렇듯 외래어(외국어) 대상의 정확성 진단 문제는 외래어 표기법을 근거로 규범 표기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통합지원’ 등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번역투 표현의 경우도 여러 연구와 국립국어원의 ‘새국어생활’ 등에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기와 표현을 점검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분명하게 구축된 정확성 진단 기준보다 ‘소통성’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공공언어에서 외래어(외국어) 표현의 사용은 공공언어를 접하는 대상이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논의를 진행하려면 공공언어 진단 기준의 ‘소

통성' 중 수용자 중심의 '용이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용이성 진단의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라는 내용은 '어려운 외래어(외국어)'라는 대상을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세부 기준이 된다.

백경미(2019)는 기존에 제시된 진단 기준을 살펴 그 기준이 모호하거나 내용의 공백이 있는 부분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그 중 '쉽고 친숙한 용어의 사용' 기준을 '용어의 남용', '외국 문자 표기',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 '줄임말'로 평가 범주를 구체화하였다.

서현정(2010)은 기존의 진단 기준을 검토하여 아래 [표 3]처럼 '외래어 외국어 사용 관련 점검표'를 제시하였다.

외래어 외국어 사용 관련 점검표		
	점검 사항	예시
1	여러 의미를 지닌 외래어 외국어를 사용하였는가?	스마트, 에코, 디지털
2	국립국어원의 다름은 말 대상어인 외래어 외국어를 사용하였는가	클러스터, 아카이브
3	로마자자로 표기하였는가?	ODA, AR, AI
4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어를 사용하였는가?	원스톱, 거버넌스

[표 4] 외래어 외국어 사용 관련 점검표(서현정: 2021)

위의 두 연구는 기존의 진단 기준을 검토하여 공공언어 용이성 진단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진단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공공언어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에 본 연구는 두 연구의 진단 및 점검 기준을 바탕으로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을 구축을 위한 2차 선별 기준을 정리하여 아래처럼 재구성한다.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 선별 기준	
선별 기준	
1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 대상어인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였는가?
2	의미가 여럿이거나 분명하지 않은 외래어(외국어)를 사용하였는가?
3	외국 문자: 외국 문자로 표기하였는가? (한글 전용 위반)
4	줄임말: 줄임말을 사용하였는가?
5	혼합형: 외래어나 외국어를 외국 문자와 섞어서 구성하였는가?

[표 5]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 구축을 위한 선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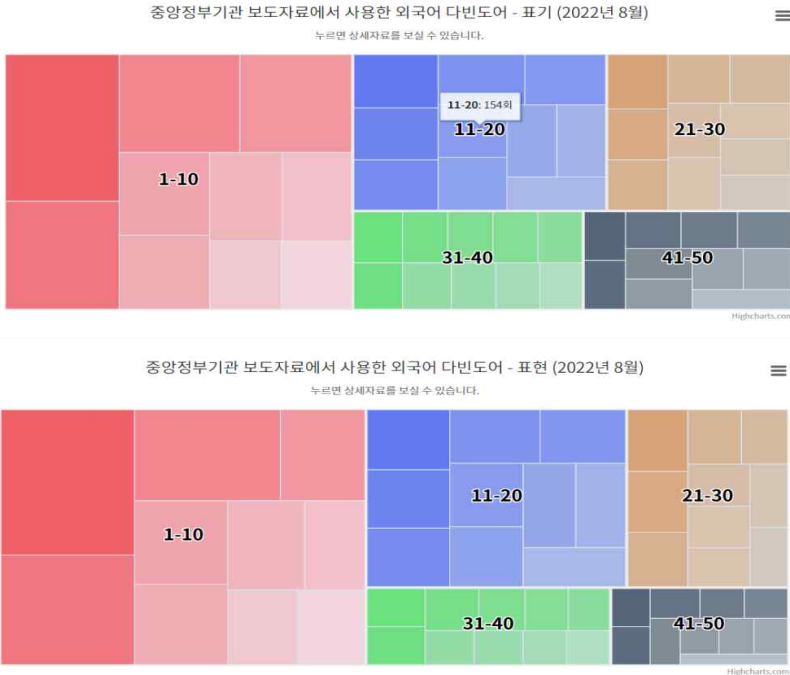
위의 <선별 기준 1>은 평가의 기본이 되는 항목으로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의 대상임에도 고쳐 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선별 기준 2>에는 ‘스마트’, ‘그린’, ‘디지털’처럼 다양한 의미를 포괄적으로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포함된다. <선별 기준 3>은 ‘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처럼 외국 문자를 우선하여 사용하면 지적한다.⁷⁾ <선별 기준 4>는 ‘SPO(school police officer)’처럼 줄임말을 사용한 경우이며, 이는 외국 문자뿐만 아니라 외래어(외국어)의 우리말 표기의 사례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선별 기준 5>는 ‘K-좀비’처럼 외래어나 외국어를 외국 문자와 섞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진단하는 기준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2차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을 구성하고자 한다.

3.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

3.1.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

7) 선별 기준 3은 ‘한글 전용’에 근거하여 괄호 밖에 우리말 표기를 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 자료의 원글(보도자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외국 문자를 사용한 경우로 크게 범위를 설정하기로 한다.

이건범(2021)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외래어(외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빈도수에 따라 그 목록을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목록의 구축은 국민의 인식 조사(이해도 포함)를 수행하기 위한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된다. 아래 [그림 2]는 한글문화연대의 '쉬운 우리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외래어(외국어)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이다. 이곳에서는 중앙정부기관과 광역자치단체가 보도자료에 사용한 외래어(외국어) 다빈도어를 표기 및 표현⁸⁾의 유형으로 각 1위부터 50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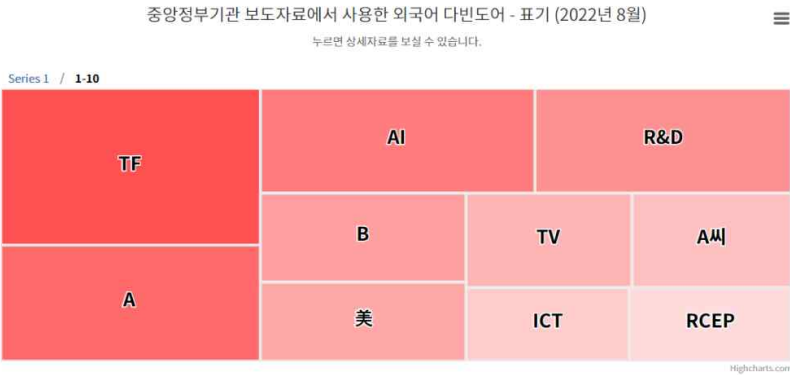


[그림 2] '쉬운 우리말'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다빈도어(표기, 표현) 자료

8) 표기는 외국 문자, 표현은 외국 낱말을 일컫는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본 연구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된다. 따라서 본 3.1.에서는 한글연대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중앙정부기관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외국어 다빈도어(표기 및 표현)' 자료(2022년 8월 기준)를 선별 기준을 토대로 사용 실태를 확인해보기로 한다.

3.1.1. 중앙정부기관



[그림 3] 중앙정부기관 다빈도어(표기) 1-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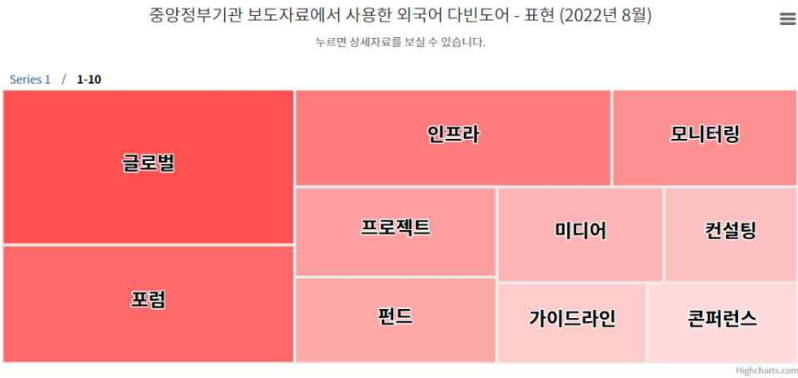
[그림 3]에서 1위인 'TF'부터 10위인 'RCEP'까지 살펴보면 표기(외국 문자)는 줄임 표현(TF, AI, R&D, ICT 등)이 자주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2차 선별 기준 4의 '줄임말'에 포함되어 어려운 외국어 목록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나 'B'와 같은 표현은 항목의 순서나 'A씨'처럼 특정 대상이나 특수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가 씨', '나 씨'처럼 권고할 수는 있겠으나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목록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중앙정부기관 다빈도어(표기) 1위-50위					
순위	표현	횟수	순위	표현	횟수
1	TF	65	26	EAC	11
2	A	48	27	LH	11
3	AI	46	28	EU	10
4	R&D	43	29	OBS	10
5	B	29	30	PPA	10
6	美	26	31	全	10
7	TV	25	32	ADHD	9
8	A씨	24	33	CEO	9
9	ICT	19	34	K	9
10	RCEP	19	35	KG	9
11	LG	18	36	NH	9
12	C	17	37	SNS	9
13	IT	17	38	APEC	8
14	社	17	39	B그룹	8
15	SK	16	40	CCTV	8
16	B씨	14	41	e	8
17	CJ	14	42	GCC	8
18	FTA	14	43	GSTC	8
19	SW	14	44	LED	8
20	OTT	13	45	NAP	8
21	對	13	46	NPT	8
22	APC	12	47	S.A.V.E.	8
23	LNG	12	48	UAM	8
24	PCR	12	49	WTO	8
25	中	12	50	大	8

[표 6] 중앙정부기관 다빈도어(표기) 1-50위

위 [표 6]의 내용을 토대로 중앙정부기관의 외래어(외국어) 표기 실태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2, 5, 8, 12위처럼 대상이나 상황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러나 34, 41위는 ‘K-드라마’, ‘e-스포츠’로 쓰여 각각 ‘한국형’, ‘전자’의 의미를 갖는 표현은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11, 15, 17위의 ‘LG’와 ‘SK’, ‘CJ’는 외국 문자로 쓰였지만, 특정 기업명이

며 이제는 ‘럭키금성’이나 ‘선경’, ‘제일제당’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27, 36위의 ‘LH’, ‘NH’는 특정 기업명이지만 ‘한국주택공사(LH)’, ‘농협(NH)’로 밝혀 쓸 수 있으므로 평가 목록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림 4] 중앙정부기관 다빈도어(표현) 1-10위

중앙정부기관 다빈도어(표현) 1위-50위					
순위	표현	횟수	순위	표현	횟수
1	글로벌	128	26	바이오헬스	17
2	포럼	97	27	챌린지	17
3	인프라	87	28	로드맵	16
4	모니터링	51	29	페스티벌	16
5	프로젝트	51	30	스마트팜	15
6	펀드	49	31	쿼터	15
7	미디어	45	32	파트너십	15
8	컨설팅	36	33	핀테크	15
9	가이드라인	34	34	마이데이터	13
10	콘퍼런스	34	35	매칭	12
11	원스톱	33	36	인센티브	12

12	리스크	32	37	제로카페	11
13	클라우드	32	38	패널	11
14	클러스터	32	39	바우처	10
15	메타버스	31	40	서포터즈	10
16	세션	30	41	스마트 모빌리티	10
17	인플레이션	29	42	심포지엄	10
18	테마	29	43	오픈 소스	10
19	워크숍	28	44	1인 미디어	9
20	엑스포	27	45	노하우	9
21	디지털트윈	25	46	마스터플랜	9
22	이슈	24	47	에코머니	9
23	스타트업	22	48	가이드라인	8
24	리볼빙	19	49	메커니즘	8
25	네트워크	17	50	센서	8

[표 7] 중앙정부기관 다빈도어(표현) 1-50위

중앙정부기관의 다빈도어에 해당하는 표현을 살펴보면 상위권에 해당하는 표현은 범용성을 지닌 것으로, 이미 다듬은 말이 구축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국제)이나 포럼(→공개 토론회), 인프라(→기반 시설)처럼 다듬은 말이 더욱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국어 정책 방향에 어긋나므로 필수적으로 평가 목록에 포함하여 지적해야 한다.

중위권과 하위권에는 시대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디지털 트윈’, ‘바이오 헬스’, ‘스마트팜’, ‘마이데이터’처럼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사용한 시점이 오래되지 않은 표현들은 이들이 정착되기 전에 대체어를 서둘러 제시하고 사용하도록 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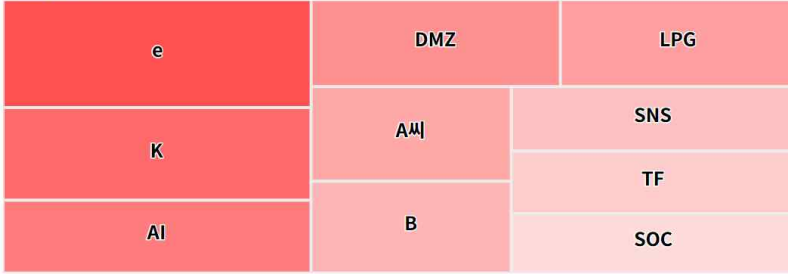
3.1.2.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외국어 다빈도어 - 표기 (2022년 8월)



누르면 상세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Series 1 / 1-10



[그림 5] 광역자치단체 다빈도어(표기) 1-10위

광역자치단체 다빈도어(표기) 1위-50위					
순위	표현	횟수	순위	표현	횟수
1	e	49	26	DRT	14
2	K	42	27	GGM	14
3	AI	33	28	A.C.E.	13
4	DMZ	32	29	BTS	13
5	LPG	30	30	G밸리	13
6	A씨	28	31	KT	13
7	B	27	32	FTA	12
8	SNS	27	33	大	12
9	TF	26	34	CBS	11
10	SOC	25	35	LED	11
11	LH	22	36	UAM	11
12	TV	22	37	ABB	10
13	e-스포츠	21	38	UN	10
14	A	19	39	서울엄마야빠VIP존	10
15	KTX	19	40	前	10
16	NH	19	41	CCTV	9
17	Go! One Team	18	42	DMZ RUN	9
18	ICG	18	43	HAPPY 챌린지	9
19	SK	18	44	IT	9
20	BNK	17	45	3D 프린팅	8

21	ICT	17	46	AFC	8
22	MZ	17	47	AKCSE	8
23	R&D	16	48	D	8
24	SMS	15	49	DMO	8
25	BIC	14	50	FISU	8

[표 8] 광역자치단체 다빈도어(표기) 1-5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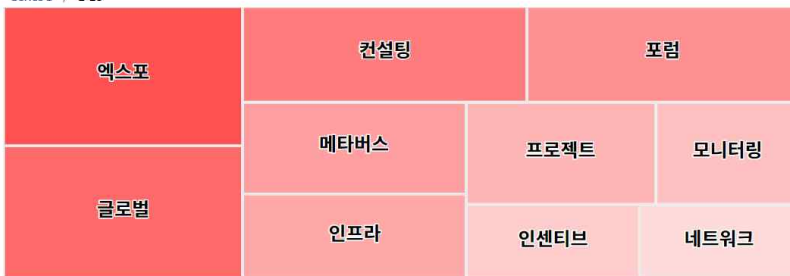
위 [표 8]의 광역자치단체 다빈도어 역시 중앙정부기관의 표기 실태와 일정 부분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각 지역만의 사업명, 표어, 공간명으로 짐작되는 정책 용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엄마아빠VIP존’은 ‘서울엄마아빠특별구역(전용구역)’ 정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외국 문자로 표기하고 있다. 또한, 47위의 ‘AKCSE’, 49위의 ‘DMO’, 50위의 ‘FISU’는 특정 단체의 이름으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처럼 표기해야 수용 대상자가 이해하기 수월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외국어 다빈도어 - 표현 (2022년 8월)



누르면 상세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Series 1 / 1-10



Highcharts.com

[그림 6] 광역자치단체 다빈도어(표현) 1-10위

광역자치단체 다빈도어(표현) 1위-50위					
순위	표현	횟수	순위	표현	횟수
1	엑스포	182	26	투어	31
2	글로벌	175	27	허브	31
3	컨설팅	149	28	펀드	30
4	포럼	142	29	커뮤니티	27
5	메타버스	112	30	스마트시티	26
6	인프라	112	31	토크 콘서트	26
7	프로젝트	105	32	트렌드	25
8	모니터링	79	33	매칭	24
9	인센티브	72	34	매뉴얼	23
10	네트워크	66	35	아이템	23
11	스타트업	64	36	미디어	22
12	콘퍼런스	62	37	업사이클	22
13	뷰티	60	38	이슈	21
14	세션	49	39	라이브 커머스	20
15	테마	49	40	퍼포먼스	20
16	페스티벌	49	41	거버넌스	19
17	바이어	48	42	심포지엄	19
18	클러스터	48	43	캐시백	19
19	그린	43	44	로컬	18
20	워케이션	41	45	마스터플랜	18
21	워크숍	41	46	타운	18
22	모빌리티	39	47	푸드 테크	18
23	원스톱	36	48	노하우	17
24	슬로건	35	49	스마트팜	17
25	키트	32	50	파트너십	17

[표 9] 광역자치단체 다빈도어(표현) 1-50위

[표 9]에서 보듯 광역자치단체 다빈도어(표현)의 상위권에서도 중앙 정부기관의 ‘글로벌’, ‘포럼’, ‘인프라’, ‘컨설팅’,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그 빈도수는 중앙정부기관의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다. 20위의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표현으로 휴가지에서 일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이는 재택근무라는 환경이 빚어낸 새로운 말이다. 이 외에도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에서 대체어를 제공하는 ‘폐

스티벌’, ‘토크 콘서트’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앙정부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외국어 사용 다빈도어 내용을 합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⁹⁾

중앙정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다빈도어					
번호	외래어(외국어)	번호	외래어(외국어)	번호	외래어(외국어)
1	1인 미디어	52	LPG	103	서울엄마아빠VIP존
2	3D 프린팅	53	MZ	104	서포터즈
3	A	54	NAP	105	세션
4	A.C.E.	55	NH	106	센서
5	ABB	56	NPT	107	스마트 모빌리티
6	ADHD	57	OBS	108	스마트시티
7	AFC	58	OTT	109	스마트팜
8	AI	59	PCR	110	스타트업
9	AKCSE	60	PPA	111	슬로건
10	APC	61	R&D	112	심포지엄
11	APEC	62	RCEP	113	아이템
12	A씨	63	S.A.V.E.	114	업사이클
13	B	64	SK	115	에코머니
14	BIC	65	SMS	116	엑스포
15	BNK	66	SNS	117	오픈 소스
16	BTS	67	SOC	118	워케이션
17	B그룹	68	SW	119	워크숍
18	B씨	69	TF	120	원스톱
19	C	70	TV	121	이슈
20	CBS	71	UAM	122	인센티브
21	CCTV	72	UN	123	인프라
22	CEO	73	WTO	124	인플레이션

9) [표 10] 목록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제거할 일부 내용을 목록에서 음영을 달리 표시하여 구별한다.

- ㄱ. 중복된 말
- ㄴ. 우리말이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기업명
- ㄷ. 특정 목적으로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말

23	CJ	74	가이드라인	125	쑤
24	D	75	거버넌스	126	前
25	DMO	76	그린	127	제로카페
26	DMZ	77	글로벌	128	中
27	DMZ RUN	78	네트워크	129	챌린지
28	DRT	79	노하우	130	캐시백
29	e	80	大	131	커뮤니티
30	EAC	81	對	132	컨설팅
31	EU	82	디지털트윈	133	컨퍼런스
32	e-스포츠	83	라이브 커머스	134	쿼터
33	FISU	84	로드맵	135	클라우드
34	FTA	85	로컬	136	클러스터
35	GCC	86	리볼빙	137	키트
36	GGM	87	리스크	138	타운
37	Go! One Team	88	마스터플랜	139	테마
38	GSTC	89	마이데이터	140	토크 콘서트
39	G밸리	90	매뉴얼	141	투어
40	HAPPY 챌린지	91	매칭	142	트렌드
41	ICG	92	메커니즘	143	파트너십
42	ICT	93	메타버스	144	패널
43	IT	94	모니터링	145	퍼포먼스
44	K	95	모빌리티	146	펀드
45	KG	96	美	147	페스티벌
46	KT	97	미디어	148	포럼
47	KTX	98	바우처	149	푸드 테크
48	LED	99	바이어	150	프로젝트
49	LG	100	바이오헬스	151	핀테크
50	LH	101	뷰티	152	허브
51	LNG	102	社		

[표 10] 중앙정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다빈도어

3.2.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

3.2.에서는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을 구성하기 위해 [표 10]의 내용을 2장에서 제시한 선별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제거하고, 남은 목록을 최종 평가 목록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차적으로 ‘이해도 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한 [표2]의 내용을 [표 10]에 적용한 결과 ‘CCTV’와 ‘TV’만 평가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중앙정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다빈도어 1차 선별 목록					
번호	외래어(외국어)	번호	외래어(외국어)	번호	외래어(외국어)
1	1인 미디어	46	NH	91	세션
2	3D 프린팅	47	NPT	92	센서
3	A.C.E.	48	OBS	93	스마트 모빌리티
4	ABB	49	OTT	94	스마트시티
5	ADHD	50	PCR	95	스마트팜
6	AFC	51	PPA	96	스타트업
7	AI	52	R&D	97	슬로건
8	AKCSE	53	RCEP	98	심포지엄
9	APC	54	S.A.V.E.	99	아이템
10	APEC	55	SMS	100	업사이클
11	BIC	56	SNS	101	에코머니
12	BNK	57	SOC	102	엑스포
13	BTS	58	SW	103	오픈 소스
14	CBS	59	TF	104	워케이션
15	CCTV	60	TV	105	워크숍
16	CEO	61	UAM	106	원스톱
17	DMO	62	UN	107	이슈
18	DMZ	63	WTO	108	인센티브
19	DMZ RUN	64	가이드라인	109	인프라
20	DRT	65	거버넌스	110	인플레이션
21	e	66	그린	111	제로카페
22	EAC	67	글로벌	112	챌린지
23	EU	68	네트워크	113	캐시백
24	e-스포츠허	69	노하우	114	커뮤니티
25	FISU	70	디지털트윈	115	컨설팅
26	FTA	71	라이브 커머스	116	컨퍼런스
27	GCC	72	로드맵	117	쿼터
28	GGM	73	로컬	118	클라우드
29	Go! One Team	74	리볼빙	119	클러스터
30	GSTC	75	리스크	120	키트

31	G밸리	76	마스터플랜	121	타운
32	HAPPY 챌린지	77	마이데이터	122	테마
33	ICG	78	매뉴얼	123	토크 콘서트
34	ICT	79	매칭	124	투어
35	IT	80	메커니즘	125	트렌드
36	K	81	메타버스	126	파트너십
37	KG	82	모니터링	127	패널
38	KT	83	모빌리티	128	퍼포먼스
39	KTX	84	미디어	129	펀드
40	LED	85	바우처	130	페스티벌
41	LH	86	바이어	131	포럼
42	LNG	87	바이오헬스	132	푸드 테크
43	LPG	88	뷰티	133	프로젝트
44	MZ	89	서울엄마아빠VIP 존	134	핀테크
45	NAP	90	서포터즈	135	허브

[표 11] 중앙정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1차 선별

이상에서 1차적으로 선별된 [표 11]의 내용을 다시 [표 5]의 선별 기준에 따라 아래처럼 유형별로¹⁰⁾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을 결정한다.

1) 외래어(외국어)

번호	지적 대상	선별 기준	번호	지적 대상	선별 기준
1	1인 미디어	1,2	37	업사이클	1
2	가이드라인	1	38	에코머니	1,2
3	거버넌스	1	39	엑스포	1
4	그린	1,2	40	오픈 소스	1
5	글로벌	1	41	워케이션	2
6	네트워크	1	42	워크숍	1

10)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의 유형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외래어(외국어) 범위를 기준으로 ‘외래어(외국어)’, ‘외국 글자’, ‘외래어(외국어)와 외국 글자의 혼종어’으로 나눈다.

7	노하우	1	43	원스톱	1
8	디지털트윈	1,2	44	이슈	1, 2
9	라이브 커머스	1	45	인센티브	1
10	로드맵	1	46	인프라	1
11	로컬	1,2	47	인플레이션	1
12	리볼빙	1	48	제로카페	1,2
13	리스크	1	49	챌린지	1
14	마스터플랜	1	50	캐시백	1
15	마이데이터	2	51	커뮤니티	1,2
16	매뉴얼	1	52	컨설팅	1
17	매칭	1,2	53	컨퍼런스	1
18	메커니즘	1,2	54	쿼터	1,2
19	메타버스	1	55	클라우드	1
20	모니터링	1,2	56	클러스터	1
21	모빌리티	1	57	키트	1
22	미디어	1	58	타운	1,2
23	바우처	1	59	테마	1
24	바이어	1	60	토크 콘서트	1
25	바이오헬스	1,2	61	투어	1
26	뷰티	1,2	62	트렌드	1
27	서포터즈	1	63	파트너십	1
28	세션	1,2	64	패널	1
29	센서	1	65	퍼포먼스	1
30	스마트 모빌리티	1,2	66	펀드	1
31	스마트시티	1,2	67	페스티벌	1
32	스마트팜	1,2	68	포럼	1
33	스타트업	1	69	푸드 테크	1,2
34	슬로건	1	70	프로젝트	1
35	심포지엄	1	71	핀테크	1
36	아이템	1	72	허브	1

[표 12]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

2) 외국 글자

번호	지적 대상	선별 기준	번호	지적 대상	선별 기준
1	A.C.E.	3,4	29	IT	3,4
2	ABB	3,4	30	K	3
3	ADHD	3,4	31	KG	3,4
4	AFC	3,4	32	KT	3,4

5	AI	3,4	33	KTX	3,4
6	AKCSE	3,4	34	LED	3,4
7	APC	3,4	35	LH	3,4
8	APEC	3,4	36	LNG	3,4
9	BIC	3,4	37	LPG	3,4
10	BNK	3,4	38	MZ	3,4
11	BTS	3,4	39	NAP	3,4
12	CBS	3,4	40	NH	3
13	CEO	3,4	41	NPT	3,4
14	DMO	3,4	42	OBS	3,4
15	DMZ	3,4	43	OTT	3,4
16	DMZ RUN	3,4	44	PCR	3,4
17	DRT	3,4	45	PPA	3,4
18	e	3	46	R&D	3,4
19	EAC	3,4	47	RCEP	3,4
20	EU	3,4	48	S.A.V.E.	3,4
21	FISU	3,4	49	SMS	3,4
22	FTA	3,4	50	SNS	3,4
23	GCC	3,4	51	SOC	3,4
24	GGM	3,4	52	SW	3,4
25	Go! One Team	3	53	TF	3,4
26	GSTC	3,4	54	UAM	3,4
27	ICG	3,4	55	UN	3,4
28	ICT	3,4	56	WTO	3,4

3) 혼합형

번호	지적 대상	선별 기준
1	3D 프린팅	5
2	e-스포츠	5
3	G밸리	5
4	HAPPY 챌린지	1,5
5	서울엄마아빠VIP존	4,5

4. 결론

본 연구는 선행된 공공언어 개선의 논의들을 토대로 선별 기준을 재구성하고,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 구축을 시도하였다.

공공언어의 기본 목적은 쉽게 우리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국어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외래어(외국어)에 대하여 국민의 인식과 이해도를 기반하여 공공언어 개선 활동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어기본법에 따라 우리말 보전을 실현하되 시대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공언어의 개선 방향을 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의 짧은 논의로 여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공공언어, 특히 외래어(외국어) 표현 개선의 설득력 있는 목록 구축을 위하여 본 연구의 미진한 부분과 앞으로의 논의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며 이 글의 결론을 갈음하려 한다.

우선 ‘어려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갈라야 한다. 본 연구는 ‘이해도 조사’의 이해도가 높은 목록에 해당하는 표현은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다시 말해 그 외의 표현은 ‘어려운 외래어(외국어)’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름은 일부 표현에 무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글로벌’, ‘이슈’처럼 우리 일상에서 큰 문제 없이 사용되는 표현이 ‘어렵다’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해도의 합당한 선을 설정하여 ‘소통이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목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목록을 구축하기 위한 대상 자료의 범위 역시 한계가 드러난다. ‘쉬운 우리말’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특정 자료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기간이나 자료 유형 측면 등에서 더욱 확대된 범위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남옥·박재현(2011), 공공언어의 수준 평가를 위한 진단 지수 개발 연구, 인문연구 6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3-156쪽.
- 김미형(2020), 쉬운 공문서 판단 기준 문제와 과제, 공공언어학 4호, 한국공공언어학회, 1-35쪽.
- 김아영(2021),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에서의 외국어 표현 이해도 조사 활용 방안, 공공언어학 5호, 한국공공언어학회, 53-86쪽.
- 김창영 외(2020), 202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2020), 신어(외국어)에 대한 국민 언어수용도 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민현식 외(2010),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 백경미(2019), 공공언어 용이성 진단 기준의 개선 방안, 77-120쪽.
- 서현정(2021),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외국어 진단 기준 제안, 공공언어학 6호, 한국공공언어학회, 공공언어학 2호, 한국공공언어학회, 141-181쪽.
- 신명선 외 (2016), 보도 자료에 대한 이해도 조사, 국어교육 연구 37, 국어교육학회, 137-195쪽.
- 유리 외(2020), 행정기관 보도자료의 어휘 및 외국 문자 사용 실태 조사, 한국언어문화 72, 한국언어문화학회, 123-144쪽.
- 이건범(2021), 한국 중앙정부의 외국어 낱말 사용과 한글전용 실태 분석, 공공언어학 5호, 한국공공언어학회, 161-193쪽.
- 이상신 외(2019), 2019년 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국립국어원.
- 이지용·김민선(2018), 공공언어 정확성 진단 기준의 개선 방안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62, 한민족문화학회, 105-138쪽.

<기타 자료>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https://www.korean.go.kr/front/imprv/refine>

List.do?mn_id=158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 3.23.), 외국어 표현 3,500개 중 응답자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불과 30.8%,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

한글문화연대 누리집, 쉬운 우리말을 쓰자, <https://www.plainkorean.kr/>